

서울 교육 소식



마포구, 17일까지 초등학교 재능기부 생활체육교실 감사 모집

생활체육은 단순히 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신체활동을 통해 자기감정을 표현하고 인간관계를 넓히는, 운동과 사회활동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다.

서울시 마포구(구청장 박홍삼)는 이러한 생활체육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널리 가르치고자 '2017년 하반기 초등학교 재능기부 생활체육교실' 재능기부 강사를 모집한다.

재능기부 감사 모집기간은 다가오는 17일까지이며 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수시로 모집할 예정이다. 재능기부 생활체육교실은 관내 우수한 생활체육인의 재능을 초등학교 방과 후 체육활동과 연계해 성장기 어린이의 스포츠 활동을 통한 체력증진과 여가 활동에 기여하고 재능기부 문화로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상·하반기를 운영하면서 상반기에는 6개 초등학교에서 4개 종목 120명이 참여했으며 하반기에는 5개 초등학교에서 2개 종목 총 119명이 참여했다.

또한 올해 3-6월 상반기 체육활동을 진행하면서 동교초등학교, 삼지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서 축구와 야구 및 국악기공 총 3개 체육 종목 수업에 약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큰 호응을 얻었다.

재능기부 종목은 축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종목이 가능하다.

감사 모집대상은 생활체육전문가로 ▲생활체육지도자 및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 ▲전직 및 현직 체육 선수, 체육분야 전공 졸업생 및 재학생 ▲생활체육 연합회 회원으로 대회출전 및 수상경력 또는 생활체육 강사 경험 있는 자 등이다.

참여 희망자는 마포구 생활체육과로 신청서 및 관련 자격증영사를 보내면 된다.

하반기 초등학교 재능기부 생활체육교실은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모집된 재능기부 강사의 종목에 따라 관내 2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10개월간 신청하게 된다.

1개의 학교 당 20-30명의 방과 후 주 1회(60분 이내)로 학교 내 시설에서 진행되며 신청된 학교에는 강사와 운동용품을 지원해 준다.

재능기부 생활체육교실과 관련 기타 사항은 마포구 생활체육과(02-3153-985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박홍삼 마포구청장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체력증진은 물론 사회활동도 함께 가르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본인의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해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나눔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학생 잠재력 끌어올리는 교육 추진

서울시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알파고' 연수 실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특성화고 미래인재전형 내실화 지원을 위해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담임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을 대상으로 10일부터 오는 11월 17일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알파고' 연수를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성취평가제 도입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특성화고등학교에 취업·창업 의지가 명확하고 성장 가능성, 창의성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소질과 적성, 학생의 특기, 잠재능력 등을 종합해 교과 성적과 관계없이 선발하는 미래인재전형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연수는 중학교 학생들이 행복적으로 입시경쟁에 잘 적응하기보다 학생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자신의 적성과 직업 세계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학교의 희망을 받아 마련했다.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알파고" 연수는 학생교육과 교사연수로 나누어 진행되며 학생교육으로는 ▲자신

의 적성과 소질을 알아보는 진로교육 ▲특성화고 학교 이해 및 진로탐색이 교사 연수로는 ▲특성화고 이해 ▲전원입장 및 학과연계 진로진학 가이드 활용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연수 이후에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 이해, 진로정보 사이트 활용방법 등 진로수업을 콘텐츠 개발해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미래인재전형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 학생의 특기, 잠재능력 등을 고려한 올바른 진로지도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알파고" 연수는 학생교육과 교사연수로 나누어 진행되며 학생교육으로는 ▲자신

평생 모은 재산 5억 원 모교 동문장학재단에 기탁

수도여고 이종숙 졸업생 '후배들 입학등록금 보탬 주고 싶다'

서울시 수도여자고등학교(교장 이원숙)는 지난 6월 23일 14시 수도여고 동문회실에서 이종숙(43, 1962년 졸업) 졸업생이 재단법인 수도여고 동문 장학회에 5억 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장학금을 기탁한 이종숙 동문은 국가 유공자인 배우자와 함께 여생을 보낼 작은 한 재단 남기고 전 재산을 정리한 5억 원을 재단법인 수도여고동문장학회에 기탁했다.

이종숙 동문은 장학금을 기탁하며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수도여고에서 공부하며 꿈과 끼였던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모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후배들의 입학등록금에 보탬을 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재단법인 수도여고동문장학회는 2012년 10월 25일 설립됐으며 2013년도부터 매년 우수한 졸업생(2017년 2월 졸업생 10명에게 총 2천만 원)과 재학생(2016년 1, 2, 3학년 중 12명에게 총 600만 원)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5억 원의 기탁으로 더 많은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학금 기탁식은 재단법인 수도여고 동문장학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2012년에 3억 원을 기탁해준 신정호 동문(7회), 박승민 재단 이사장(18회), 이연숙 동문회장(19회), 교장 및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6월 23일 있었다.

장학금 기탁자인 이종숙 동문은 자신이 기탁한 재산이 후배들이 국가를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으며 기탁자의 배우자는 장학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존의 장학금 액수를 높이는 데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학재단 박승민 이사장은 감사의 뜻과 함께 장학재단의 발전에 더욱 힘을 쓸 것을 약속했으며 이원숙 교장은 수도여고 학생들이 동문의 뜻을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졸업에서 장학금을 받은 이수빈(70회), 서울대 국어교육과 입학)은 자신이 받은 장학금 전액(200만 원)을 학교에 기탁하는 등 자신이 받은 사랑을 후배에게 전달하는 훈훈함을 보여주며 선배들이 긴 시간 동안 공들인 사랑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바 있다.

주요한 장학사업으로 우수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재단법인 수도여고동문장학회에서는 이번 이종숙 동문의 5억 원 기탁을 받아 더 많은 후배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기침 콜록 수업은 이제 안녕~

광진구, 초등학교 교실환경 개선 1억 2천만원 지원

서울시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초·중·고교 교실 10개 중 4곳에서 여전히 분필용 칠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초등학교 비중이 60.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등학교 22.8%나 중학교 15.5%가 뒤를 이은다. 분필가루는 교사와 학생들의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하다.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봉)가 초등학교 교실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내 9개 공립 초등학교에 1억 2천 만원을 지원한다.

구는 해당 초등학교 내 10년 이상 된 낡은 칠판이나 사물함, 신발장 등의 노후 시설물을 이달부터 방학기간 동안에 교체하거나 설치해 깨끗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달간, 지역 내 19개 공립초등학교에 전수조사 및 학교별 수요조사를 실시해 9개 공립초등학교에 총 76개의 사물함 974개, 신발장 41개 지원을 결정했다.

선정 우선순위는 노후도가 심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 학습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 중 학교 재원이 부족해 교체에 어려움을 겪는 공립초등학교 위주다. 품목별로는 건강과 직결된 노후 칠판, 사물함, 신발장 순이다.

지원규모는 학교별 신청액이 5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고학년 위주로 학교당 11~17학급에 1450만원부터 2100만원 내외가 지원된다.

초등학교 외에 구는 지난해 지역 내 중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구는 지역 내 3개 중학교에 2,560개의



노후 책걸상 세트를 바꿔주고, 금액으로는 총 2억 5600만원을 뒷받침했다.

김기봉 광진구청장은 "교실환경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과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우리구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한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교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포 아동복지센터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안전교육 뮤지컬

입시

2017. 7. 12(수) 10:30

2017. 9. 6(수) 10:30

장소

영등포 아트홀 공연장

영등포구 YONGDEUNGPO-GU

영등포구, 12일 오전 아트홀서 어린이안전교육 뮤지컬 실시

서울시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7월 12일과 9월 6일 2차례에 걸쳐 지역 내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학부모 5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뮤지컬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래와 율동이 있는 뮤지컬 공연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공연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영등포 아트홀에서 어린이와 학부모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1995년부터 뮤지컬, 인형극, 매직쇼 등 풍부한 공연 경험을 지닌 어린이 전문 교육 극단 '진구'가 구내 위로 올라 '안전지킴이 코난'을 공연한다.

'안전지킴이 코난'은 어린이 안전 수호자를 펼치는 지구의 친구 코난, 푸름이, 강산이가 무뎠서 역할을 통해 안전불감증을 불러오는 무서운 미래를 가상 체험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꼭 읽고 실천해야 할 안전 교육의 양호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재난, 화재, 교통 등 각종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소재로 그 예방법을 유익하고 재미있게 풀어내 알려주는 것이 큰 특징으로, '복화술'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적용하여 어린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안전분야에서 믿음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다."며, "아이들이 안전에 더욱 관심 갖고 조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교육활동을 지원토록 하겠다." 고 전했다.

한편, 이번 뮤지컬 이외에도 9월 6일, 2차 어린이안전교육 뮤지컬이 개최되며,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 관계자는 도시안전과(☎2670-3065)로 문의하면 된다.

에티켓통 | ETQUETTONG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 FEMINE HYGENE BINS

[특허 받은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에티켓통 특징

- 에티켓통은 남녀노소 누구나 활용할 캐시노로 불투명 제작되어 방균과 탈취가 되는 제품입니다.
- 에티켓통은 내부 보강력이 분쇄되기에 내용물을 버리지 않고, 물로 세척이 용이 합니다.
- 에티켓통은 내시로 고정 되기에 시선이 저하되고, 탈취제 및 향기, 화장실 리모델링 시 탈취 및 탈취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 에티켓통은 내외장형과 일회용 내장형(박형), 저온세척식 등 다양한 탈취 및 탈취효과를 제공합니다.
- 에티켓통은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을 통해 난생 난생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장시간 300여 여성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S2B 8400 (구형)

www.s2b.co.kr | 112-112-112 | 112-112-112

모델명	금액	S2B 학교용 제품사양번호
XV-ET1000형 일회용	77,000원	20150406340208
XV-ET1000형 일회용	99,000원	20150406340209
학교위생용품(10종) 1Box	43,500원	20150406340208
학교위생용품(30종) 1Box	143,000원	201504063404028

특혜제 [특혜 제 10-1120069호] [디자인등록 제 30-0573670호]

"은니노가 활용된 학교용 탈취가 되는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에티켓통"

생리대 수거장치로 특허받은 제품 : 에티 Q (주)가아이젠이 / www.에티켓통.com ☎ 02)866-8921, 055)242-8921